

『行人』에 있어서의 「비」

윤혜영*

目次

1. 머리말
 2. 숨겨진 욕망을 나타내는 「비」
 3. 쓸쓸한 「비」
 4. 소세키의 어두운 결혼관을 나타내는 「비」
 5. 맺음말
-

1. 머리말

소세키(漱石) 문학작품 속에서의 「비」는 작품세계 및 장면을 효과 있게 묘사해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됨과 동시에 문예적, 미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게 해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아사히(朝日)신문사 입사 후 처음으로 쓰여진 『우미인초(虞美人草)』(『아사히신문』 1907.6.23~10.29)에서는 「문명의 숙녀」인 후지오(藤尾)의 분노를 강조라도 하듯이 봄이라는 계절에는 어울리지 않는 세찬 비가 내리고 그 안에서 후지오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버린 비는 그친다. 『산시로(三四郎)』(『아사히신문』 1908.9.1~12.9)에는 미네코(美禰子)와 산시로가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 서 있는 장면이 있는데 두사람의 육체적인 거리를 좁히는데 있어서 비는 필수불가결한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다.¹⁾ 또한 『문(門)』(『아사히신

* 충남대학교 강사 일본근대문학

1) 본 논문 중의 소세키 작품의 모든 원본인용은 『漱石全集』(岩波書店, 1975)에 의하며 인용자가 번역하였다.

문』 1910.3.1~6.12)에서는 비가 오면 비가 세서 집 안이 온통 젖어버리고 한 켠레 밖에 없는 소스케(宗助)의 신발 또한 젖어버려 곤란해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의 소스케의 비참하리만큼 초라하고 가난한 생활상이 효과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히간스기마테(彼岸過迄)』(『아사히신문』 1012.1.1~4.29)의 「비가 내리는 날」에는 딸이 죽은 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비가 오는 날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 마쓰모토(松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세키가 자신의 딸 히나코(雛子)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삽입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실제로 히나코가 죽은 날은 맑은 날이었다. 하지만 소세키는 작품 속에서 이 날을 의도적으로 비가 오는 날로 설정하여 죽음을 애도하는 슬픈 분위기를 충분히 살려 그 문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가 내리는 장면이 많고 비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작품으로 『그 후(それから)』(『아사히신문』 1909.6.27~10.14)와 『行人』(『아사히신문』 1912.12.6~1913.11.17)을 들 수 있다.

먼저 『그 후』에서는 「비 때문에, 비로 인한 소리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다이스케(代助)와 미치요(三千代)는 서로가 공유하는 옛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다이스케는 「내 존재에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미치요는 내리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린다.²⁾ 이와 같이 『그 후』에 있어서의 비 또는 빗소리는 「작품 기조에 깔린 불안을 완화시키는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공간을 다이스케와 미치요에게 부여함으로써 인해 서로의 진실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³⁾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行人』은 「친구(友達)」, 「형(兄)」, 「돌아온 뒤(帰つてから)」,

「비는 점점 강하게 내렸다.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곳은 조금밖에 없다. 두 사람은 점점 한군데로 좁혀졌다. 어깨와 어깨가 스칠 정도가 되어 선 채 꼼짝 못하고 있었다. 빗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미네코는

「아까 그 돈 쓰세요」라고 말했다.

「빌리죠. 필요한 만큼만」이라고 대답했다.

「전부 쓰세요」라고 말했다. (8)

- 2) 「그 사이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다. 집을 감싸고 먼 소리가 들렸다. (중략) 둘은 얼굴을 나란히 하고 정원 쪽을 보고 있었다. 파란 나뭇잎이 모두 젖어 조용한 습한 기운이 유리창 너머로 다이스케의 머리에 붙어왔다. 세상에 떠 있는 것은 남김없이 대지 위에 떨어져 안정이 된 듯 보였다.

「기분 좋은 비네요」라고 말했다. (10)

「무슨 용건이라도 있나요?」라고 잠시 후 미치요가 물었다. 다이스케는 단지,

「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그뿐 또 잠시 빗소리를 들었다. (중략)

비는 여전히 길고 조밀하게 소리를 내며 내렸다. 두 사람은 비 때문에, 비로 인한 소리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었다. 같은 집에 사는 가도노와도 할머니와도 분리되었다.(14)

- 3) 윤혜영(2007) 「『그 후(それから)』에 있어서의 소리의 역할」 『일본문화연구』 第24輯, 동아시아 일본학회. p.380

(병으로 중단) 「진로(塵勞)」의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는 비가 내리는 장면이 눈에 띄게 많이 그려지고 있다. 지로(二郎)와 그의 형수인 나오(直)가 와카야마(和歌山)에서 하룻밤을 같이 묵은 날은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휘몰아쳤고, 나오의 남편인 이치로(一郎), 지로, 어머니, 나오가 오사카(大阪)에서 도쿄(東京)로 돌아오는 날 밤에도 비가 내렸다. 오사다(お貞)의 결혼식 날도 비가 왔고, 나오가 지로의 하숙집에 혼자서 찾아온 날 밤에도 비가 내린다. 또 지로가 미사와(三沢)의 주선으로 집안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맞선 비슷한 것을 본 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고, H씨와 여행을 나선 이치로가 빗속에서 춤추며 외치는 장면이 있다. 이와 같이 『行人』은 비로 축축하게 젖어있는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行人』론은 그 거의 대부분이 이치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다른 모든 인물은 버려져 되돌아보지지 않았다」⁴⁾라고 이즈 도시히코(伊豆利彦)가 지적하고 있는데, 「비」는 고뇌하는 근대지식인의 결정체인 이치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그 관계규정이 등한시되던 지로와 나오의 관계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가 내리는 장면을 중심으로 하여 지로와 나오의 관계 및 비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숨겨진 욕망을 나타내는 「비」

「나는 전부터 형수와 좀 아는 사이였다」라는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치로보다 나오를 먼저 안 것은 지로였고, 「자네가 나오 씨 옆에 오래 붙어있으니까 나쁜 거야」라는 미사와의 말이나, 나오와 지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둘이서 앉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싫은 얼굴을 하는 지로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주변사람들이 의식할만한 어떠한 일이 나오와 지로 사이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지로와 나오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또는 가족들과 차단된 독립된 공간에서 둘이서만 있게 된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나 비가 온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폭풍우 치던 밤 와카야마에서의 하룻밤이다. 이치로는 아내인 나오가 자신의 동생인 지로를 연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의 정조를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으로 지로에게 나오와 와카야마에 가서 단둘이 하룻밤을 묵어줄 것을 부탁한다. 이치로 또한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말이 없고

4) 伊豆利彦(1991) 「『行人』論の前提」 『漱石作品論集成』9, 桜楓社, p.77

냉랭한 나오가 지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등을 보며 지로와 나오의 미묘한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지로는 놀라며 자신의 명예와 윤리상의 문제라며 거절하지만 결국 묵지는 않고 하루일정으로 다녀오기로 결정된다. 그러나 그날은 「아침부터 공교롭게도 비가 내릴 듯했다」고 묘사되고 있다. 이에 주저하는 지로에게 이치로는 약속을 어겨서는 곤란하다고 말하고, 결국 지로는 나오와 와카야마로 향한다. 지로는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은 비」를 두려워하며 왜 이런 날 이런 이상한 일을 떠맡았는지 후회한다. 연이어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는 파도소리나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은 비에 대한 묘사는 앞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경종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로와 나오가 요리 집에 들어갔을 때 비는 내리기 시작하고 이에 지로는 안절부절 못한다. 언제 그칠지 모르는 비를 걱정하는 지로의 모습을 보고 나오는 오히려 이상해할 정도이다. 지로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치로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 달라고 나오에게 부탁한다. 이 말을 들은 나오는 자신을 「혼의 빈 껍질」이라고 말하고는 손수건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지로는 이러한 나오의 모습을 보고 강한 연민의 정을 느낀다. 이때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야기에 열중하던 두 사람은 와카노우라(和歌の浦)가 폭풍우에 휩싸인 것을 알고 할 수 없이 여관으로 안내된다. 그리고 여관은 폭풍우로 인해 정전이 되어 어두워진다.

두 사람은 어두운 곳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눈으로 색을 보지 않기 때문인지 밖의 폭풍우는 이제까지보다 더욱 귀에 들어왔다. (「형」 3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있나요?」라고 묻는 지로에게 나오는 「있어요. 인간 인데요. 거짓이라고 느껴지면 이리로 와서 손으로 만져보세요」라고 답한다. 이에 지로는 손으로 더듬어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윽고 나오는 오비(帶)를 풀고 유카타(浴衣)로 갈아입는데 지로는 어둠 속에서 그 소리만을 듣고 있을 뿐이다. 이는 소세키의 작품 속에서 찾아보기조차 힘든 아주 에로틱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잠깐 전기가 들어와 밝아졌을 때 지로는 형수가 어느 샌가 연하게 화장을 한 사실 또한 알아차린다.

방 안은 양초 등으로 인해 소용돌이치듯이 동요했다. 자신도 형수도 눈살을 찌푸리며 타오르는 불꽃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안정되지 않는 쓸쓸함이라고 형용할 수 있는 기분을 느꼈다. (「형」 36)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잠재되어 있던 사랑의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지만 도덕적으로 사랑이 금지된 두 사람의 관계에 지로는 쓸쓸함을 느낀 것은 아닐까? 바람은 욕망을 상징하고 있고 바람·폭풍을 동반하여 내리는 비는 영문학에서는 늘 육체적인 사랑과 연계되어 있다.⁵⁾ 영문학서를 즐겨 읽은 소세키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설정을 했는지 어떤지는 확정지을 수 없지만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맡으면 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두 사람에게 서로를 이성으로 인식하는 성적인 욕망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친구의 부인인 미치요와 다이스케가 비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것처럼 나오와 지로 또한 비로 차단된 공간에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行人』에서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는 바람을 걸들임으로 인해 두 사람의 흔들리는 감정 및 애로틱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가 작품 속에서 고립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상징물로 인정된다면 작품 『行人』에서의 지로(二郎)와 형수와의 동숙의 장면에서도, 간통을 정면으로 묘사할 수 없었던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두 사람의 간통행위의 가능성이 시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⁶⁾라는 논의 있는데 여기에서 지로와 나오의 간통의 가능성까지 추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비와 바람이 섞인 무시무시한 음향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고 있는 지로와 나오의 정신세계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지로; 인용자) 머릿속에는 지금 봐온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하늘이 무시무시하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나 형이 있는 3층의 숙소가 파도를 몇 번이나 뒤집어쓰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것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이 방 안에서 자고 있는 형수가 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천재라고는 하지만 둘이서 여기에 묵은 변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다. 변명한 뒤 형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도 생각했다. 동시에 오늘 형수와 같이 외출하여 좀처럼 없는 이런 모험을 같이 한 기쁨이 어딘가에서 솟아나왔다. 그 기쁨이 생겼을 때, 나는 바람도 비도 해일도 어머니도 형도 모두 잊었다. 그러자 그 기쁨이 또 갑자기 일종의 두려움으로 변화하였다. 두려움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두려움의 전조였다. 어딘가에 잠복하고 있는 듯이 여겨지는 불안의 징후였다. 그리고 그 때는 밖에서 미쳐 날뛰는 폭풍우가 나무를 뿌리채 뽑거나 담을 넘어뜨리거나 지붕의 기와를 젓히거나 할 뿐 아니라 지금 어두운 등불 밑에서 맛이 없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 자신을 산산조각으로 파괴하는 예고와 같이 여겨졌다. (「형」 37) (밑줄; 인용자)

5) アット・ド・フリース(1984) 『イメージ・シンボル事典』 大修館書店. p.516

6) 임명수(1997) 「『それから』考 -사랑과 상징적 수법-」 「일본문화학회」 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299

이어 나오는 죽으려면 맹렬하게 단번에 죽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은 언제나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는 결의를 비친다. 이는 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미치요의 모습이 상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하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와카야마에서의 하룻밤은 지로와 나오에게 외부와는 차단된 공간을 제공해주고 동시에 서로에 대한 감정을 암암리에 확인하게 해주는 밤이었던 것이다. 와카야마에서 돌아온 지로와 나오의 행동은 어머니에게 늘 관찰되며 형에게 불려갈 때 지로는 나오의 얼굴을 보고 득의양양한 빛을 띠우게 된다.⁷⁾ 「이 정도의 대답을 했을 때의 나는 진실로 순진하고 양순한 동생이었다」 나 「나는 이제야 돌이킬 수도 없고 속죄할 수도 없는 이 태도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라는 대목이 의미심장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현재의 지로의 모습을 상상컨대 간통으로 인해 세상과는 동떨어져 조용히 살고 있는 소스케와 오요네(御米)의 모습이 비쳐지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로는 도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오의 환영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룬다. 그 때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의 울림 속에서 내 밑에 있는 형수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에 대해 생각하면 유쾌했다. 동시에 불쾌했다. 왠지 부드러운 구렁이에게 몸을 말린 듯한 기분도 들었다. (중략) 그때 기차 소리가 딱 멈추자 동시에 췌-하며 빗소리가 들렸다. (「돌아온 뒤에」 1)

지로의 밑에서 자고 있는 나오의 구조 또한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반대편에서는 밑에 어머니, 그 위에 이치로가 잠들어 있다. 빗소리를 인식한 지로는 급히 창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물어보는데 이에 대답한 것은 나오 뿐이었다. 추측컨대 나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녀 또한 이 빗소리를 들으며 지로의 환영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비가 오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한다. 지로는 「예에」 라고 대답할 뿐이다. 그러나 이 짧은 대화 속에는 더욱 깊은 뜻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이 빗소리를 들으며 와카야마에서 함께 보낸 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7) 「나는 이때의 내 심리상태를 해부하여 지금 회고해보면 형을 놀릴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그를 약올릴 생각이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왜 그 정도로 형에게 대범해질 수 있었는지는 스스로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아마 형수의 태도가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옮겨진 것일 것이다. 나는 이제야 돌이킬 수도 없고 속죄할 수도 없는 이 태도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형」 42)」

지로가 이치로 앞에서 대범해지고 형수인 나오의 태도가 부지불식간에 옮겨지게 된 것은 비가 오는 날 들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체험의 비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와카야마에서 하룻밤을 같이 한 추억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것이다. 와카야마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해 외부와 차단한 공간에서 하룻밤을 같이 하게 된 것이지만 다음은 나오의 의지에 의해 비가 오는 날 지로를 방문하게 되면서 이 비의 효과는 더욱 클로즈업된다.

도쿄에 돌아온 지로는 와카야마에서의 일로 이치로와 크게 다툰 뒤 하숙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온다. 하숙을 시작하고 한참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나오가 찾아온다. 하숙집을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나오의 뜻밖의 방문에 지로는 놀람과 동시에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그 날도 아침부터 흐린데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있던 것이다. 지로는 왜 나오가 이 비가 오는 추운 밤에 자신을 방문했는지 의아해한다. 지로는 나오에게 「다시 추워졌네요」라고 말하고 이어서 「비가 내리는데도 잘도 외출하셨네요」라고 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왜 외출하신 건가요?」라고 물었다.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던 지로는 조곤다를 닮은 불가사의한 나오의 미소 앞에 꼼짝 못하고 몸이 굳어버린다. 지로는 나오의 미소를 보고 비와 바람이 부는 폭풍우 속에서 함께한 그날 밤이 생각난 건 아닐까? 성묘하러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나오는 아무도 모르게 지로의 하숙에 들린 것인데 나오 또한 내리는 비를 보고 불현듯 지로와의 추억의 그날 밤이 생각났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눈치 챈 지로는 나오에게 과감히 「당신은 너무 대범해요」라고 말할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로가 나오의 손과 발을 주시하고 있는 사이 나오는 화로에 손을 쬐면서 지로에게도 손을 쬐라고 권한다.

지로는 웬지 주저하며 손을 내밀기 힘들었다. 그 때 창 밖에서 쓸쓸히 내리는 빗소리가 들렸다. 낮에 세차게 불던 서북풍은 비와 함께 뚝 그쳤기 때문에 세상은 의외로 조용해졌다. 단지 규칙적으로 물받이를 때리는 빗방울 소리만이 똑똑 울렸다. (「진로」2)

그리고 좁은 방에 마주앉아 지로는 나오의 모습을 세세히 관찰한다. 지로는 「그녀의 후지이마를 이 정도로 가까이 또한 오랫동안 바라본 적은 없었」고 나오의 창백한 뺨의 빛깔을 화염과 같이 눈부시다고 생각한다. 나오가 돌아간 뒤 그날 밤은 조용한 비가 밤새 내렸다. 베갯머리를 치는 듯 내리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지로는 계속해서 나오의 환영을 그린다.

질은 눈썹과 그리고 질은 눈동자, 그것이 눈에 떠오르자 창백한 이마나 뺨은 자석에 달라붙는 쇠조각의 속도로 바로 그 주의에 반영했다. (중략) 나는 결국 그녀의 입술 색깔이 뚜렷이 보았다. 그 입술 양쪽 끝에 있는 근육이 소리나지 않는 말의 심벌과 같이 어렵듯이 가늘게 떨리며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육안의 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미세한 소용돌이가 보조개로 갈까 무너질까 방황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파도를 치는 그녀의 뺨을 똑똑히 보았다.

나는 그 정도로 살아있는 그녀를 그만큼 격렬하게 상상했다. 그리고 빗방울 소리가 똑똑하고 울리는 중에 견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달아 오른 머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진로」 5)

어둠 속에서 나오가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는 장면과 마찬가지로 지로의 의해 관찰된 나오의 모습은 아주 관능적이라고 볼 수 있다. 평소 말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 나오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 두 장면에 집중되어 있고, 나오는 은연중에 자신을 현재의 운명에서 구해줄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갑자기 비가 내리는 추운 밤에 와서 자신을 놀라게 한 것이 꽤 유쾌한 장난이라도 되는 듯이 「깜작 놀랐죠」라고 말하는 나오에게 지로는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들이 만날 때마다 바람을 동반하고 내리는 비는 나오와 지로의 서로에 대한 감춰진 욕망의 표출이며 덧붙이자면 앞으로 도래할 비극적이고 슬픈 두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 쓸쓸한 「비」

『문』에서는 소스케의 외로운 운명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밖은 짙은 비에 가리어져 있었다. (중략) 이 울적한 하늘 아래 젖으러 나가는 소스케에게 힘이 되는 것은 따뜻한 된장국과 따뜻한 밥 밖에 없었다」는 묘사가 돋보이며, 『히간스기마데』의 「그 사이에 흐린 하늘에서 쓸쓸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외롭고 슬픈 물방울」, 「쓸쓸한 색」(『초가을의 하루(初秋の一日)』 1912.9) 등, 소세키의 작품 속에서는 외롭고 쓸쓸한 비가 자주 내린다. 또한 소세키가 병상에 누워있을 당시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생각나는 일 등(思ひ出す事など)』(『아사히신문』 1910.10.29~1911.2.10)에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내 병은 점차 나쁜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라고 적고 있기도 한데, 이와 같이 소세키 문학에서의 비는 쓸쓸함을 상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行人』에서 또한 쓸쓸한 나오의 모습과 작품기저에 깔린 불안을 비를 통해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나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쓸쓸하다」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쓸쓸한 뺨에 한쪽 보조개를 모여 보였다」, 「쓸쓸한 색깔의 뺨」, 「쓸쓸한 한쪽 보조개」, 「예와 같은 쓸쓸한 보조개」, 「쓸쓸한

웃음», 「쓸쓸히 웃으면서», 「젊고 쓸쓸한 입술», 「여느 때와 같은 쓸쓸한 웃음», 「쓸쓸한 가을에 꽃이 피는 풀과 같이», 「형수만은 쓸쓸히 웃어주었다», 「쓸쓸한 한쪽 보조개조차 평소와는 다른 의미의 쓸쓸함」 등, 『行人』에는 나오의 쓸쓸함 또는 나오가 처한 외롭고 슬픈 운명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쓸쓸한 비가 자주 내린다.

그리고 비오는 날 밤 지로에게 관찰된 나오의 「짙은 눈썹», 「짙은 눈동자», 「창백한 이마와 뺨」은 우연히도 미사와가 말하는 「그 여자」와 불행한 결혼생활을 경험하고 정신병에 걸린 아름다운 「아가씨」와도 상당히 흡사하다. 나오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여자」와 정신병에 걸린 아가씨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 여자」는 게이샤로 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와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 오게 된다. 지로는 병원을 오고가다가 「인내의 상」과 같이 「불쌍한 자세」로 가만히 앉아있는 「그 여자」를 발견하고, 등을 구부리고 있는 곳에 「무서운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이 느껴져 불쾌해진다. 그리고 「그 여자」는 「쓸쓸한 웃음」을 짓는 여자로, 「그 쓸쓸한 웃음을 오늘밤 웬지 기차 안에서 꿈에서 볼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미사와는 오사카를 떠난다. 그런데 미사와가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사와의 집에서 돌보던 정신병에 걸려 결국에는 죽은 「아가씨」와 닮았기 때문이다. 이 아가씨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경험한 여자로 미사와의 집에 잠깐 머물던 여자이다.

그 아가씨는 창백한 색의 미인이었다. 그리고 검은 눈썹과 검고 큰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검은 눈동자는 늘 먼 곳의 꿈을 바라보고 있는 듯이 멍하게 젖어 그곳에 무언가 의지할 곳 없는 듯한 가련함을 띄우고 있었다. 내가 화내려고 뒤돌아보면 그 아가씨는 현관에 무릎을 꿇은 채 마치 자신의 고독을 하소연하듯이 그 검은 눈동자를 나에게 향했다. 나는 그 때마다 아가씨에게 이렇게 살아있어도 혼자뿐이라 외로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팔에 매달리는 듯이 느꼈다. (「친구」 33)

이와 같이 미사와는 아가씨의 검은 눈동자에서 「고독」과 「쓸쓸함」을 느끼고 그 하소연하는 듯한 눈에 사로잡힌 것이다.⁸⁾ 이 이야기를 한 미사와가 오사카를 떠난 다음, 바로 비슷한 이미지로 묘사되는 나오가 등장한다. 이와

8) 추후 지로가 미사와의 집을 방문했을 때 화폭에 그려져 있는 여성 또한 「그 여자」 및 「아가씨」 그리고 나오의 계보를 잇는 듯한 묘사가 보인다.

「거기에는 여자의 목이 그려져 있었다. 그 여자는 검고 큰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검은 눈이 부드럽게 젖어 멍한 것이 꿈같은 향을 화폭 전체에 감돌게 하고 있었다. (중략) 나는 이 그림을 보자 가련한 오펔리아를 연상했다. (「진로」 13)」

같이 「그 여자」 및 「아가씨」는 나오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과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검고 큰, 방울져 떨어질 만큼 촉촉한 눈」을 가진 아가씨는 비의 이미지와도 연결된다. 지로가 나오에게 가련함을 느끼고 그녀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나오의 눈물이며 비가 오는 날의 둘만의 체험에 의해서임이 다시 상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느 찰나에는 그녀는 인내의 화신과 같이 내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인내에는 고통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고귀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는 대신 미소를 지었다. 옆드려 우는 대신에 단정히 앉았다. 마치 그 앉아 있는 자리 밑에서 다리가 썩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요컨대 그녀의 인내는 인내라는 의미를 지나 거의 그녀의 자연에 가까운 어느 것이었다.

(「진로」 5)

위의 인용은 병원에서 「그 여자」가 「인내의 상」과 같이 「불쌍한 자세」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과 흡사한 묘사라고 볼 수 있다. 「나는 부모님의 손에 의해 심겨진 화분의 초목과 같아서 한번 심겨지면 누가 와서 움직여 주지 않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선 채로 말라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지로에게 하소연하는 나오의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늘 제도라는 그늘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소세키의 여성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미사와가 아가씨의 「크고 촉촉한 눈」을 본 이후 가슴 속에 그녀의 존재가 각인된 것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지로의 가슴 속에 쓸쓸하고 가련한 나오가 끊임 없이 떠오를 것이다.

4. 소세키의 어두운 결혼관을 나타내는 「비」

『行人』의冒頭는 「우메다(梅田)의 정거장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어머니에게 지시 받은 대로 바로 차를 세내어 오카다(岡田)의 집으로 달려갔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어머니에게 지시받은 것」은 오사다의 결혼에 관한 일로 오카다가 소개한 사노(佐野)라는 사람을 지로가 가족을 대표하여 만나게 된다. 그리고 지로의 한마디에 두 사람의 결혼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지로는 일종의 「두려움」마저 느낀다. 또한 지로는 자신이 결혼할 때에도 일이 이렇게 간단히 진행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일이 진행되면서 오카다 부부가 그려지고 있는데 그들 또한 손쉽게 맺어져 아무 불평 없이 살아가는 보통의 부부이다. 지로는 오카다 부부를 보고 결혼해서 그들과 같이 친해질 수 있으면 아마 행복할 것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카다는 아이가 없어서 쓸쓸하다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오카네(お兼)는 얼굴을 붉힌다. 지로는 오사다와 사노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이에 오카다는 「그야 잘 살지 않겠습니까? 나와 오카네를 봐도 알 수 있잖습니까? 결혼한 뒤 아직 한 번도 크게 싸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이어서 「뭐 어느 부부든지 대개는 비슷하죠」라고 하는데, 이는 「영도 혼도 말하자면 마음도 알기 힘든 여자와 결혼한 것만은 확실하다」⁹⁾고 탄식하는 이치로 부부의 불행한 결혼생활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의 상태를 더욱 부각시켜 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行人』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오카다 부부를 비롯하여 비슷한 경로를 거쳐 새로 결혼할 오사다 부부, 그리고 또한 비슷한 경로로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이치로 부부 등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랑이 부재된 제도에 의해 결합된 부부이다. 오카다의 말에 의하면 이치로나 나오는 보통의 부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서 소세키의 연애 및 결혼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하숙하기로 마음먹은 지로는 집을 나가기 직전에 이치로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데, 이치로는 「혼자 나가는 건가?」라는 기이한 질문을 한 뒤, 지로에게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의 사랑을 알고 있냐고 묻는다.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는 단테(Alighieri Dante, 1265~1321)의 『신곡(神曲)』(1307~1320) 지옥편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형수와 시동생 사이였던 프란체스카와 파올로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죄로 프란체스카의 남편에게 비참하게 살해되어 지옥을 떠도는 망령이 된 비극적인 사랑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이치로는 세상이 프란체스카의 남편의 이름은 잊고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만을 기억하는 이유로서 「인간이 만든 부부라는 관계보다도 자연이 만들어낸 연애 쪽이 실제로 신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좁은 사회가 만든 답답한 도덕을 벗어버리고 큰 자연의 법칙을 감탄하여 크게 칭찬하는 소리만이 우리의 귀를 자극하게 되도록 남는

9) 「〈자연〉이라는 이름하에 「연애결혼」을 한 것이 아닌 나오에게 이치로에 대한 마음의 정조는 의무가 아니고 바로 그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그녀의 「정조를 시험해본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水村美苗(1991) 「見合いか恋愛か」 「夏目漱石『行人』論(下)」 『批評空間』 No2, p.191)고 지적되고 있듯이, 오카다나 오사다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혼했을 이치로가 나오의 진심을 몰라 방황하는 모습에는 모순이 보이지만, 이치로와 나오에게 이미 「연애」라는 의식이 있었기에 제도에 얽매인 결혼을 한 두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나오의 자신을 「혼의 빈 껍질」이라 칭하며 그저 머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만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도덕에 가세하는 것은 일종의 「지나가는 비」와 같고 나중까지 남는 것은 파울로와 프란체스카뿐이라고 이치로는 말한다. 소세키는 연애이상주의자는 아니지만 이치로의 말을 통해 사랑이 배제된 제도적인 결혼에 대한 소세키의 비판의식을 엿볼 수 있다. 나오가 결혼 전부터 미리 알던 지로를 마음속으로 연모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항상 서재에만 틀어박혀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치로와의 결혼생활은 그다지 행복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녀 또한 단지 아내로서의 역할만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치로와 나오는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타인일 뿐, 나오는 진솔한 자신의 속마음을 비가 오는 밤 이치로가 아닌 지로에게 고백하는 것이다.

여하튼 당사자 간에 직접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결정된 오사다의 결혼식 전날, 이치로는 오사다가 결혼하기 전에 말해줄 게 있다며 그녀를 서재로 부른다. 이 말에 모두 이상한 얼굴을 하는데 나오의 입술에 현저하게 냉소의 그림자가 비친 것을 지로는 알아챈다. 그리고 서재에서 이치로와 오사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나오는 평상시보다 기분 좋게 이야기하거나 웃거나 하는데, 그 속에는 「불쾌를 감추려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노력이 강하게 잠재」되어 있다고 지로는 생각한다.

오사다의 결혼식 날은 「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려 혼례에는 어울리지 않는 울적한 날씨」였다. 그리고 이치로 부부가 중매인이 된다. 이치로는 「결혼을 해서 한사람의 인간이 둘이 되면 혼자 있을 때보다도 인간의 품격은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 무서운 일을 겪는 일조차 있어. 뭐 조심하는 게 중요해」라고 말하는데 이는 소세키의 어두운 결혼관을 대변해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새 부부와 오카다는 낮 기차로 바로 오사카를 향해 떠났다. 나는 비가 오는 플랫폼 위에서 2, 3일 하코네 부근에서 체류할 오사다를 배웅한 뒤, 아버지와 형과 헤어져 혼자 자신의 하숙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당연히 순서가 돌아올 결혼문제를 인생에 있어서의 불행의 수수께끼처럼 생각했다.

(「돌아온 뒤」 36)

하필 비가 오는 울적한 날 혼례를 마치고 비가 오는 플랫폼에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설정을 통해 소세키는 오사다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듯하기도 한다. 와타베 요시노리(渡辺芳紀)는 『行人』을 「너무 사랑한 자의 비극」¹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사다의 결혼, 오사다에게 사노를 소개한 오카다의 결혼, 또한 이치로와 나오는 결혼, 그러한 순번을 밝게 될 것을

10) 渡部芳紀(1990) 「『行人』に描かれた「男」と「女」」 『国文学解釈と鑑賞』9、至文堂. p.106

불안해하는 지로¹¹⁾ 등을 보면 「사랑이 배제된 결혼」 제도에 얽매인 근대인들의 불행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맺어진 부부의 불행을 예고하기라도 하듯이 비가 오는 울적한 날이라는 상황설정에 의해 그 문예적 효과를 더욱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行人』에서는 와카야마에서의 소세키의 실제체험¹²⁾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며, 은혜와 축복의 비가 아니라 어둡고 쓸쓸한 비는 작품전체의 침울한 느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와카야마에서의 폭풍우 치던 밤과 나오가 혼자서 지로의 하숙집을 찾아온 비오는 밤은 지로와 나오에게 외계와는 차단된 공간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잠재되어 있던 지로와 나오의 감추어진 욕망을 암시하고 있으며 부지불식간에 서로를 각인시키게 하는 운명적인 힘을 가진 것이었다. 또한 비오는 밤에 들어서만 만나는 장면에서는 소세키 작품 속에서는 보기 드문 예로틱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한시에서 비가 눈물을 의미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야기 도중 눈물을 흘리는 나오를 보고 지로는 가련함을 느끼며 그녀에게 점점 이끌리게 된다. 결국 비가 오는 날마다 지로는 나오의 눈물이 생각날 것이며 나오와 함께 한 추억이 늘 지로를 괴롭힐 것이다.

또한 나오의 묘사에는 늘 「쓸쓸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병으로 죽어가는 게이샤인 「그 여자」나 불행한 결혼생활을 경험하고 정신병에 걸린 「아가씨」를 연상하게 하는 불행하고 쓸쓸한 여인의 계보에 서 있는 것이 나오이며, 곳곳에서 묘사되는 「쓸쓸한 색깔」의 「비」는 이러한 쓸쓸한 나오의 심정과 처지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비 내리는 울적한 날, 서로 냉랭한 이치로 부부가 중매인이 된 오사다의 결혼식 날의 묘사는 사랑이 배제된

11) 지로가 미사와의 주선으로 맞선 비슷한 것을 본 「6월 2일은 공교롭게도 비가 왔다」고 묘사되고 있는데 나오와의 추억의 비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는 한 지로의 결혼생활도 행복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소세키는 1911(明治44)년 8월에 오사카아사히신문사가 주최한 강연을 위해 와카야마에 간 일이 있다. 이때 엄청난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것이 『行人』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전차로 와카야마에 가는 도중에 비가 내린다. (중략) 연회를 열 때부터 폭우가 내린다. (중략) 우리는 후지야라는 곳에 들어간다. 전등이 꺼진다. 램프를 켜다. 그 램프가 또 꺼진다. 참담한 곳으로 와카노우라 일행이 걸어서 돌아간다. (중략) 소나무가 쓰러져서 갈 수 없다고 한다」(「일기」 1911.8.15)

제도적인 결혼에 대한 소세키의 어두운 결혼관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친구인 H씨와 여행을 떠난 이치로가 폭풍우가 올 기미까지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 엄청나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숨이 막힐 듯한 바람을 향해 돌진하며 소리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고뇌의 극한에 달한 근대 지식인의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또한 와카야마에서 지로와 나오가 목었던 날과 비슷한 이날 이치로는 그때의 그 기억이 되살아나 뛰쳐나가지 않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가뭄으로 메마른 초목이 비를 만난 것 같이 이치로의 고뇌가 잠깐이나마 치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行人』은 H씨가 지로에게 보내는 긴 편지로 끝을 맺고 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구름이 하늘에 연하게 끼었을 때,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구름이 하늘에 있는 동안 해를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는데, 이와 같이 『行人』은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를 걱정해야 되는 불안이라는 요소를 끝까지 남기고 있는 작품이며, 이 불안은 소세키 문학의 저변에 늘 깔려있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여하튼 『行人』은 소세키 문학작품 중 「비」의 효과가 가장 극적이며 효과적으로 나타나 있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参考文献】

- 윤혜영(2007) 「『그 후(それから)』에 있어서의 소리의 역할」 『일본문화연구』 第24輯, 동아
시아일본학회. p.380
- 임명수(1997) 「『それから』考 -사랑과 상징적 수법-」 『일본문화학보』 3집, 한국일본문
화학회. p.299
- アット・ド・フリース(1984) 『イメージ・シンボル事典』 大修館書店. p.516
- 伊豆利彦(1991) 「『行人』論の前提」 『漱石作品論集成』 9, 桜楓社. p.77
- 水村美苗(1991) 「見合いか恋愛か」 『夏目漱石『行人』論(下)』 『批評空間』 No2, p.191
- 渡部芳紀(1990) 「『行人』に描かれた「男」と「女」」 『国文学解釈と鑑賞』 9, 至文堂. p.10

要 旨

本論文では、漱石の文学作品の中での「雨」が作品世界及び場면을効果よく描写する一つのキーワードになると同時に、文芸的、美的な効果をも十分発揮できる素材であるということに着目し、『行人』における「雨」の降る場面を中心として二郎と直の関係及び「雨」の役割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

和歌山での暴風雨の夜と、直が一人で二郎の下宿に訪ねてきた雨の降る夜は、二郎と直に外界と遮断された空間を作ってくれと同時に奥の奥に潜んで隠されていた二郎と直との欲望を暗示しており、知らぬ間にお互いを刻印させる運命的な力を持つものであった。またこのように雨の降る中での二人だけの出会いの場面には漱石の作品の中では稀なエロテックな描写が目立つ。そして話の途中涙を流す直を見て二郎は可憐だと思い彼女に惹かれていくのである。結局雨の降る日は二郎は直の涙を思いだし、また直と一夜を一緒に過ごした思い出が絶えず二郎を苦しめるだろう。

また直への描写には「淋しさ」という言葉がよく使われているが、病気で死んでいく芸者の「あの女」や不幸な結婚生活を経験して精神病にかかってしまった「お嬢さん」を連想させる不幸で淋しい女の系譜に立っているのが直であろう。「淋しい色」の「雨」はこうした淋しい直の心境と境遇とを象徴している。そして婚礼にふさわしくない雨の降る日に一郎夫婦が媒酌人になったお貞さんの結婚式の描写では漱石の暗い結婚観が覗かれる。

このように『行人』は漱石文学の中で「雨」の効果が一番劇的で効果的に現われている最高の作品である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雨、風、エロテック、欲望、淋しさ、暗い結婚観

투 고 : 2007.11.30

1차 심사 : 2007.12.08

2차 심사 : 2007.12.29

住 所 : (306-792)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영진로알아파트 102동 509호

電 話 : 011-1740-3328

e-mail : yun1971@hanmail.net